

# “양질 의료서비스 갖춘 영암으로 전지훈련 오세요”

### 영암군-영암한국병원, 전지훈련 선수단 지정병원 업무협약 “선수·지역 상인 서로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시킬 것”

영암군과 영암한국병원(원장 오남호)이, 지난 26일 영암군청에서 전지훈련 선수단 지정병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영암을 전지훈련장 삼은 다양한 종목 선수들에게 최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자고 약속했다. 영암군은 이번 협약식으로 전국 전지훈련팀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암한국병원이 물리치료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약속함에 따라, 전지훈련 선수들

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전지훈련 최적지로 영암군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에서 전지훈련하는 선수단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전국에서 모여든 선수들이 영암의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이용하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선수와 지역 상인이 서로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영암군은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와 사계절 온화한 기후, 신선하고 맛깔스러운 친환경 먹



거리 등의 장점으로 스포츠 전지훈련 최적지로 전국에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지난해 6개 종목, 69개 팀, 15,000여 명 규모

### 신안군, 증도면 증동권역 거점개발사업 93억 선정

신안군은 어촌중심지의 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증도면 증동권역이 선정되어, 2028년까지 총 93억 원(국·도비79%)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청, 면사무소,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전라남도 및 해양수산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증도면은 중국 송나라 유물 2만여 점이 발굴되었으며, 2007년 아시아 최초슬로시티, 팟농어 다리, 미세먼지 차단숲, 광활한 백사장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정동어, 백합 등 제철 수산물 생산되고 있으나,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 중심권역이 침체되어 여러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번에 선정된 『증도 증동권역 거점개발사업』은 보물섬 힐링마당, 문화센터, 안길정비, 공동시설 리모델링, 정동어 테마로드, 주거지 색채정비, 힐링로드, 옛길복원, 소공원 등 권역의 시급한 맞춤형 생활SOC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의 특화발전이 기대된다.



### 영광군, ‘식중독 발생 현장 대응’ 합동 모의훈련 실시 실전 같은 모의훈련 식중독 대응역량 강화

영광군은 지난 26일 영광고등학교에서 유관 기관 합동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에는 전남도청, 전남도교육청, 영광교육지원청, 보건환경연구원, 영광군청(위생팀·감염병관리팀), 영광고등학교 및 대내 17개 시군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각 기관별 대응능력 및 관계기관 협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학교 급식 후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가정하에 ▲식중독 의심 환자 인지 및 신속한 보고 ▲관계기관 출동 및 대응협의체 운영 ▲검체 수거 및 역학조사 ▲식중독 사후 조치 및 회의 등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바탕으로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정확한 보고 체계 및 대응 능력을 높여 식중독 사전 차단,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올해 여름은 고온의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어디서든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한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히고,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요령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무안군,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실시

### 이용시설 제도권 편입...미이용 방지시설 원상복구

무안군은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관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전수조사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무안군이 최근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대행)로부터 ‘2023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하수 관련 법령이 1993년 제정되었으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과 이용종료시설 방치로 지하수 오염 문

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전수조사 기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가 선정한 전문 조사업체에서 관내 미등록 지하수에 대해 현장 확인, 시설 제원 조사, 소유자 탐문 및 면담을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이용 중인 곳은 제도권으로 편입(등록 전환)하고 미이용 방지시설은 원상복구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올해 하반기에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2023년 7월 ~ 2024년 6월)하여 신고 기간 동안 자진신고 지하수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법 적합 여부 검토 후 수질검사 및 과태료·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불법 지하수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는 지속 가능한 지하수 환경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이번 전수조사 및 자진신고를 통해 이용 중인 시설은 양성화하고 미이용시설은 폐공 처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목포시립합창단, ‘홍탁 삼합’ 트로트 창작 뮤지컬 성황리 종료

### 제79회 정기공연, 봄의 노래와 함께 ‘홍탁삼합’ 뮤지컬 첫 선 보여



목포시립합창단의 제 79회 정기연주회가 관객들의 열띤 호응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목포시립합창단은 지난 25일 열린 정기 연주회에서 봄의 노래와 창작뮤지컬 홍탁삼합을 선보여, 시민과 함께 즐기는 무대를 만들었다. 이날 첫선을 보인 홍탁삼합은 목포를 배경으로 한 트로트 뮤지컬로, 목포 토박이 권만석의 칠순잔치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소동을 가족애로 훈훈하게 그려냈는데, 탄탄한 스토리가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으며 생동감을 더했다. 이어서 소양강치녀, 목포행 안행열차 등의 트로트 주크박스과 맛깔나는 합창단원들의 열연이 더해졌다. 목포=기동채본부



### 함평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맞춤형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함평군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맞춤형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함평군은 30일 “맞춤형 반부패·청렴교육이 지난 26일 엑스포공원 주재영사관에서 7급 이하 공직자, 신규임용자, 부패취약부서 담당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6급 이상 공직자 위주의 교육에 이어, 이번 교육은 7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공재정환수법 등의 주요 내용이 다뤄졌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공직사회에 청렴한 공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군수 주재의 청렴협의체 구성·운영 ▲직원·민원인 대상 청렴메시지 및 서한문 발송 ▲간부공무원 청렴 방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